

안철수·유승민 통합선언...반대파 “올림픽 개막전 창당”

통합개혁신당 공식화...“반발해도 소용 없다” 신호

반대파 “당 무시한 독재” 성토...신당 창당 발기인 모집

국민의당 분당 카운트다운

국민의당 분당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양당 통합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 출범을 공식화하자,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2월9일) 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이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횡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되겠다”며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통합정당의 각오를 밝혔다.

이날 양당 대표가 모두 전당대회를 통한 합당 의결 전 통합공동선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당을 둘러싸고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줄이는 한편 점차 격화되는 국민의당 합당반대파의 반발을 꺾기 위한 기전제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합정당의 정체성, 비전 제시를 통해 합당의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며

지지를 확보하고 합당을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에게 ‘반발해도 소용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것이다. 양당 대표의 통합선언 직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독재적 당 운영”이라며 안 대표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통합선언으로 내달 4일 합당 여부를 의결하는 전당대회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전대 저지를 통해 이날 통합선언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와 유 대표의 통합선언은 불법이자 해당 행위”라며 “안철수식 ‘독재당’ 운영은 박정희 전두환을 능가한다. 명백한 해당 행위가기에 이번 통합선언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날 안·유 대표의 통합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정배 의원도 논평에서 “어떤 궤변을 둘러대도 이는(이들의 통합선언은) 촛불 국민혁명을 무위로 돌려 적폐정산을 가로막으려는 퇴행적 폭거일 뿐”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대통합의 문을 여는 반호남 지역파권의 부활이자 남북관계를 이명박근혜 시대로 되돌리려는 냉전 회귀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장치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당을 나가서 뭐든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합당반대파 의원들은 이날의 통합공동선언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고 합당 여부를 안건으로 내건 국민의당 2·4 임시전대 총력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미 안 대표 등 합당찬성파 주도로 최근 개정된 전대 관련 당규를 ‘합당 안건 통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별도로 꾸리겠다고 밝힌 ‘개혁신당’ 창당 시점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맞불을 놔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부터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열을 뒤인 28 일에는 발기인 대회 겸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2월9일) 전에 개혁신당 창당의 깃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유 대표의 통합선언 내용을 두고 “홍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보수선언을 합니다. 역시 수구보수대어합”이라며 “(우리가) 개혁신당 창당한다니(이들이) 통합개혁당입니다. 따라하기보다는 수구보수통합당이라 당당하게 하라 권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지난 17일 밤 “다음달 4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전국 23곳에서 임시 전대를 연다”고 공고했다. /김영호기자 khh@



“잘 해 봅시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합집산”...한국당 “생존의 피난처”

양당 흑평 쏟아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통합을 공식 선언하자 여당과 다른 야당은 ‘이합집산’ ‘야합’ ‘생존의 피난처’ ‘뒀다방’ 등의 용어를 써가며 악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분 없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자 보수야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복합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 둘도 없이 말라져 오만한 발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단일기를 들지 말

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평화 올림픽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불평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하며 복지와 안전을 강화할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뒀지 걸기’로 대선후보 당시의 약속까지 부정하는 내용의 합당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받 는 정치인 안철수 대표와, 최측근마저 떠 나보내고 떠난 최측근까지 비판하는 험 략한 정치인 유승민 대표의 결합이 국민

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 문하면서 “상처받은 결합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피난처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통합도 못 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두 사람은 통합선언문에서 갖은 미시여구를 다 동원 해 당위성을 실화하려 했지만, 통합과정 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뒀다방 개소 식’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가 절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대로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확대

당정 ‘최저임금 안착’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추가 지원책 마련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 임대로의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벤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예제에서 정

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

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또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기금 활용 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대상(착한 상가)을 마련해줄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 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낙연 총리, 새해 정부 업무보고 받는다

총리 첫 사례...29일까지 고용부 등 분야별 7차례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새해 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의 내실 다지기와 함께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첫 번째 정부업무보고에서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 라면서 이를 위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계획 드러내기 ▲유관 부처의 정책 낮추기와 유기적 협력 구축 ▲책임장관의 면모 드러 내기 등 세 가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 보고 의 주제”라며 “이것을 위한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



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연작륙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기 않는지 등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고 활발히 토론했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경진 전략기획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장성세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